

프랑스 영상문화 <제 5 차시>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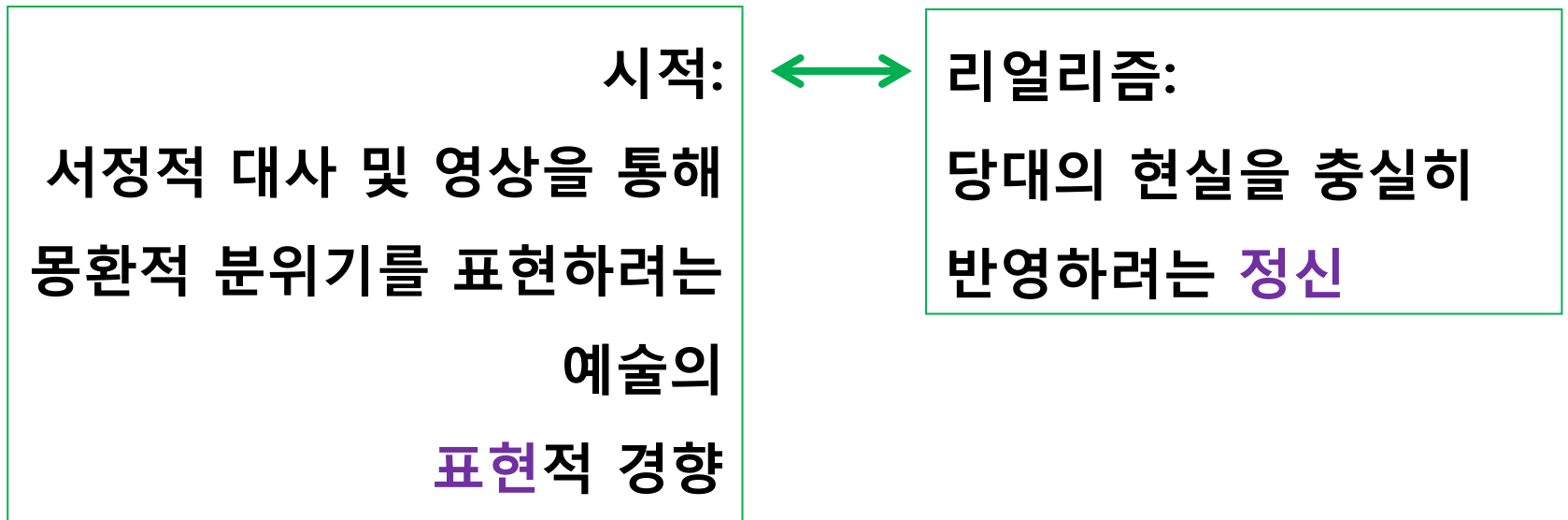
1. 시적 리얼리즘과 프랑스 영화 작가들
2. 주요 감독들
3. 전후 쇠퇴와 변화
4.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예: 안개 낀 부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김 종 기

1. 시적 리얼리즘과 프랑스 영화 작가들

- 1930~40년대 프랑스 영화계를 주도.
- 전세계에 프랑스 영화의 중흥을 이끌었던 영화들을 통칭
- “문예영화”라고 불렀던 이 경향의 모순성은?



- 시적 리얼리즘이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형성한 이유
 - 뛰어난 시나리오 작가들(자크 프레베르,
앙리 장송, 샤를르 스파크 등)
 - 명배우들(미셸 시몽, 장 가벡, 루이 주베 등)
 - 사회적 분위기: 세계 경제 대공황 (1929~1939)
 - 독일의 '거리 영화'(Strassenspiel film) 운동(20년대 중반)이
직접적인 영향
 - 화면의 조형적 구성 및 카메라와 조명의 탐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독일 표현주의 운동에 반대

- 우선 시적 리얼리즘 감독들은 '거리 영화'의 경향대로

'거리'를 작품의 주요 무대로 삼음

→ 서민들의 고달픈 삶과 부랑아, 탈영병, 창녀 등

주변부 사람들의 불행한 인생역정을 보여줌

- 그러나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거대한 스튜디오에 재구성된

서민적 거리를 점차 영롱한 불빛과 축축한 안개를 동원해

서정미 넘치는 공간으로 장식

→ 아름다운 시적 정서가 비참한 현실을 압도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감

- 이후 시적 리얼리즘은 거리를 무대로 서민들의
애환을 다루는 리얼리즘 정신을 계승
- 동시에 지나친 '정서 지상주의'를 배제하고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기록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으로 발전.
예: 자전거 도둑(비토리오 데 시카, 1948)

- 시적 리얼리즘은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1930년대의
세계영화사 흐름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 현상
→ 문어체적이고 시적인 대사를 중요시하는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은 배우의 발성 연기와 대사의 묘미에 의존하는
초기 유성영화의 풍토에 잘 부합하기 때문
- 예: 시나리오 작가로 변신한 시인 자크 프레베르는 아름답고
정제된 언어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들을 만들어 냄
← 많은 문학 작품들이 영화로 각색됨

2. 주요 감독들

- **쥘리앙 뒤비비에, 마르셀 카르네 :**

시적 리얼리즘을 이끌었던 대표 감독

- **장비고 :**

1934년에 단 4편을 남기고 29세에 요절한 비운의 감독.

30년대 초, 시적 리얼리즘의 진수를 보여준

선구적 감독으로 평가.

➔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의 창시자

- 장 르느와르 : 프랑스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시네아스트
<시민 케인>(1941)의 오손 웰스와 비교되기도 함.

→ 예리한 사회 비판의식을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도,

 딥 포커스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을 탐구.

→ 자연주의에 가까운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을 견지하면서

 몽환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

 <랑주씨의 범죄>, <위대한 환상>, <게임의 규칙>

➔ 시적 리얼리즘의 영역을 확장

JEAN GABIN

Scénario et Dialogues:
CHARLES SPAAK et JEAN RENOIR

Conseiller technique : CARL KOCH

Montage :
MARGUERITTE MARTHE HUGUET

Assistant metteur en scène:
JACQUES BECKER

LA GRANDE
ILLUSION

장 르누와르(1894-1979)의
위대한 환상 (1937)
오프닝 크레딧.

감독, 배우, 시나리오 작가 등을 확인해 보라

Réalisation de
JEAN RENOIR



위대한 환상 중
딥 포커스의 예. 책 읽는 병사를
전경에 두고
후경에 다른 병사들을
배치 시킴으로써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롱 테이크를 통해
편집 보다는 미장센에
중점을 둔다.

- **마르셀 카르네 :**

가장 전형적인 시적 리얼리즘 영화를 만든 감독.

시나리오를 맡은 자크 프레베르와 공동작업

→ 도시 주변의 소외된 삶에 대한 그의 세심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과 프레베르의 서정성 넘치는 대사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룸. <안개 낀 부두>, <북 호텔>,

<새벽>, <인생 유전> 등이 그 대표작

→ 이들 모두는 흥행에 크게 성공.

➔ 프랑스 영화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기록

3. 전후 쇠퇴와 변화

- 감동과 서정미로 세계를 풍미했던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2차 세계대전으로 쇠퇴
-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본래 경향:
 - 당시 프랑스 사회에 만연했던 온갖 부정적 요소들을 들추어 내고
 - 지배 문화로부터 소외 당한 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 그러나 카르네, 뒤비비에 등 주류 감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보다는 지나치게 서정적이며 상징적인 수사학적 표현에 치우침

→ 현실 도피적인 인상을 강하게 남김

- 그럼에도 이 경향의 영화들은 2차 대전 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프랑스인들의 불안과 절망을 우수 어린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해냄

- 특히 비고와 르느와르의 영화는 당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단순한 직접화법보다는 자유로운 상상과 초현실적 기법 등이 더해진 풍요로운 영상으로 표현
- 훗날 현대 영화에서 추구하는 주관적 리얼리즘의 전례가 됨



4.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예:

안개 낀 부두

Le Quai des brumes

(마르셀 까르네, 1938)에

나타난 시적 리얼리즘의

여러 양상들

Jean
GABIN

LE QUAI
DES
BRUMES

안개 낀 부두

Michel
SIMON
et
Michèle
MORGAN
dans

SCÉNARIO ET DIALOGUE DE
Jacques PRÉVERT
D'APRÈS LE ROMAN DE
Pierre MAC ORLAN
(ÉDITÉ PAR N.R.F. SYNOPS)

UN FILM DE
Marcel CARNÉ

영화의 감독, 배우, 시나리오,
원작에 관한 오프닝 크레딧.
시적 리얼리즘의 대표작이다.



르아브르 - 20킬로



- 그럼 잘 가시오
- 담배 안 가져가요?



그 사람 손이 피로
빨갧게 되고 폭 쓰러지면,

장소가 제시되고... 언제나 안개가 개입되고 있다.
소외되고 인생이 힘든 인물들은 쉽게 친구가 된다.
이들에 대한 감독의 동정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음에 관한 대사, 떠돌이 개는 영화의 서사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하지만 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꼭 산 송장 같은
- 바보야, 입 딱쳐



그것 좀 가만 놔둬

언제나 안개가 지배하고 있다.
주인공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인물들의 공통점은? 현실 도피적...
낙원을 찾는... 그들의 특성은?
영화 서사 전체 속에서 해석 가능할 것이다.



바다 밑은 더 깊고
더 먼 곳이에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
- 나도 역겨운 거지?



나도 17살이면 좋겠군



안 그러면 자...



대사를 보라. 시적이다.

갑자기 [부르주아] 건달들이 나타나고...

시적인 대사와 현실[폭력]이

교차되고 있다.



자벨(미셸 시몽), 추악하고 위선적인 부르주아가 보여주는 술수와 주인공의 비판적 행동



장이 어린 시절의 나를
부르러 온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모두 혼자야



며칠 더 계실 거죠?



장(장 가벡)과 넬리(미셸 모르강)
사이의 시적 대사.
그리고 파라과이(이상향)로 떠나려는 탈영병,
도망자의 시선으로 처리된
떠남에 관한 영상언어를 보라.



배가 아직 안 떠났을 거예요
탈 수 있어요



빨리 시간이 없어



사랑과 인생의 갈등... 떠나려는 자의 마지막...

언제나 안개가 지배하고 있다.

영화 시작 부분에서 암시된 죽음에 관한 대사와 떠돌이 개를 통한 은유는 작품 전체 서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